

황금돼지 출산장려 '황금희소식'

임실군, 첫째아 300만원 상향 조례개정 · 신생아 건강서비스 비용 50% 지원 계획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임실군이 출산장려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출산정책을 전개 중인 임실군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에 필요한 지원비 확대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정부가 하지 못한 지원정책을 먼저 시행,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에는 첫째아 출산 시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첫째아는 300만원부터 넷째 이상은 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 군은 또한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와 신생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출산 후 3개월간 소요되는 산후와 신생아들의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으로 매달 110만원씩, 총 3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통상 출산 후 일반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들어가는 비용은 약 220만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실군은 이 중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에 걸쳐 다양한 맞춤형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임실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및 출산축하용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으로 임신부 등록과 동시에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 중이며, 난임부부 지원, 임신부 이송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건

강관리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이어서 그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첫째아 출산시 3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정부 정책이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 정부가 못한 정책을 임실군이 시행하려고 한다"며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일부라도 지자체가 해결해 준다면 출산부담을 크게 덜 것이고, 인구증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640-3152~3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올해 지역발전 현안 추진 '탄력'

지난해 국비 1130억 · 공모사업 734억원 확보

남원시는 지난해 국비 1,130억원(151개 사업)과 공모사업으로 734억원(86개 사업)을 확보해 금년에도 지역발전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확보한 국가예산 중 눈에 띄는 사업은 화장품기업 전문직식산업센터 조성사업(250억)과 월락정수장 개량사업(325억), 가야 유류리 및 두리리 고분군 정비사업(248억), 황산대첩비지 정비사업(100억),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56억) 등이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142억)을 비롯해 공설시장 야시장활

성화사업(5억), 농촌기초생활거점사업(80억), 농촌마을만들기 사업(30억), 시설원에 현대화사업(29억), 가족분노 공동자원화 시설사업(91억) 등 농촌활성화 사업예산 300억원으로 역대 최고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사업에서 수영장(85억),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문체부 국민 체육시설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9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춘향골 파프리카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파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농촌진흥기관 평

가 최우수상,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 평가 5년 연속 S등급, 산지유통 종합평가 4년 연속 A등급 선정,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지자체협력사업 우수조직평가에서 대상상을 수상하는 등 54건의 시정평가 수상과 7억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남원시는 20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동부내륙권 정읍~남원 도로개설 등 10개 도로관련 신규 SOC사업을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2021~25)에 반영하고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소방심신수원원 유지를 통해 국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순창군이 16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는다.

농축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농가에 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전하는 제도다.

축산분야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9

개와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 등 총 26개 품목을 제외하고 신청을 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따라 피해대상품목을 신청하고 지원센터에서 조사 분석한 후 지원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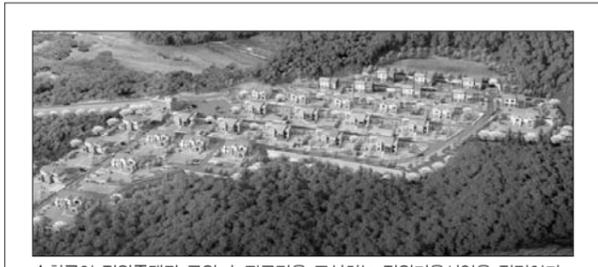
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축산분야에서 염소가 한·호 FTA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에 포함되면서 39농가 5,725두에 대해 608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도 블루베리 등 2종의 품목에 대하여 89ha, 13억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순창군이 전원주택과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전원마을사업을 전망이다

상선약수 남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착공

순창군, 31호 전원주택 · 녹지공간 등 신규마을을 조성

순창군이 31호 전원주택과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상선약수 남계지구 전원마을사업'을 통해 인구유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순창읍 남계리 산 13-6번지 일원에 '상선약수 남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1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은 물론 도시민과 은퇴자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고자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만여㎡의 면적에 단독주택 31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이 사업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5년만에 착공되는 사업으로, 순창을 주거문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시공업체와 마을정비조합간 계약을 완료했으며,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남계지구 전원마을은 국비와 군비 18억원과 마을정비조합 부담금 등 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도로보 10분 거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두고 있어 지리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주민편의시설도 들어서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또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마을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공간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최적의 농촌마을이 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2019년 임실군 통합마케팅 협의회를 가졌다.

임실군, 올해 통합마케팅 협의회 개최

임실군은 9일 임실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19년 임실군 통합마케팅 협의회를 가졌다. 박진두 부군수를 주제로 2018년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나섰다.

농민단체와 5개의 농업관련 단체, 임실군과 품질관리원 등 16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전년138% 이상 매출성장을 기록하여 184억을 달성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 정산보고를 시작으로 진행했다.

공선출하 품목별 성과 분석의 시간

을 가졌다.

통합마케팅 8년차를 맞아 행정과 농협 간 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예농산물 활성화사업과 통합마케팅 활성화, 공동작업, 공동출하 확대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박진두 부군수는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협업의 정책을 통한 상생발전의 통합마케팅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명절 식품 특별점검

남원시보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가공식품 등)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허위·과대광고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과, 떡, 식용유 등 가공식품과 농산물, 수산물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해 산폐처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3일 오후 2시 남원시선거위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 신청시 구비사항 ▲각종 신고·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인월면 찾아 교통안전교육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8일 인월면 서무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50여명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남원에서 발생한 어르신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이륜차나 사발이 등 운전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규정 및 안전띠 단속 홍보등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